

## 제2편

# 인하대학교로의 도약과 발전

### 제1장 새 재단(財團), 새 대학 운영 1968. 9~1972. 2

제1절 새 이사장과 인하학원의 체제 개편

제2절 대학의 새로운 운영

### 제2장 종합대학교로의 승격 1972. 3~1981. 2

제1절 대학의 종합화 계획

제2절 종합대학교로의 새로운 출발

제3절 대학 종합화의 구현

# 제1장. 새 재단(財團), 새 대학 운영 1968. 9~1972. 2

## 제1절. 새 이사장과 인하학원의 체제 개편

1968년 9월 14일, 신임 조중훈 이사장이 인하공과대학 대운동장에서 성대한 취임식을 가졌다.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제 12대 이사장으로 정식 취임한 것이다. 이날의 취임식에서 조중훈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통해 인하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오늘 본인은 고(故) 이승만(李承晩)박사께서 설립하신 유서 깊은 학교법인 인하학원(仁荷學園)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음을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그동안 본 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역대 이사장님, 학장, 교수,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꿈꾸어 왔던 본인의 미래상의 일부가 실현을 보게 된 이 순간 저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회를 느끼는 바입니다. 본시 육영사업은 국가발전의 기본이며 교육은 슬기로운 우리의 과제입니다. 특히 천혜의 자원이 결핍된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의 양성이야말로 국가중흥의 첩경이고 정도라 하겠습니다. 인하학원을 맡게 된 저의 소신도 이러한 의미에서 조국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의 양성과 그 성장을 위하여 지원을 이기지 않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이 중차대함을 재삼느낍니다.

그간 역대 학장 및 교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로 성장한 본 대학이 이제 고명하신 성좌경(成佐慶)박사님을 학장으로 모시게 됨을 다같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학의 전당인 이 인하공대가 나라와 겨레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책임과 사명을 함께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꿈은 참다운 인재양성이며 이 과제를 수행함에는 여러분의 성의와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오늘날 간판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이 꿈을 이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은 그 개인으로서 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견지로서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국가와 겨레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원으로서의 풍조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합심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합심 협력은 명실상부한 인하의 발전을 약속할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재정지원과 학원운영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본인도 재단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은 물론, 인하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연구하는 교수,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진 각자가 본분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학생 여러분께서는 기술만을 다루는 공학도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덕망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전문지식에만 치중하여 기계적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어도 국가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기술인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본 학원의 발전에 있어서 교수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중추가 됨은 재론을 요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는 교수 여러분의

배전의 연구와 노고가 요구되며 본인도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당초 인하공대의 설립 목표인 동양의 MIT를 이룩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본 학원의 발전을 위해 성과 열을 다하여 봉사할 결의를 표하면서 내외귀빈 및 학내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력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임하시는 김장훈 선생님과 박철재 박사님을 비롯한 전임 이사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취임사를 대합니다.



학내 시설을 돌아보는 조중훈 이사장

보았기 때문이다.

빛나는 창학정신(創學精神)과 유능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기대를 두루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하공과대학이 개교 이래 오랫동안 온전한 재단의 뒷받침도 없이 임시 이사진의 교체만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인하인들로서는 실로 뜻 깊은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재력 면에서는 물론이요 육영(育英)의 지에 있어서도 남달리 빼어난 조중훈 이사장을 맞이함으로써 최고의 공학교육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오랜 숙원의 성취 가능성을

온갖 환호와 기대 속에서 인하학원을 인수하게 된 신임 조중훈 이사장은 1968년 8월 31일의 임시 이사진 총사퇴를 계기로 장차 인하학원의 운영을 맡게 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신임 이사진은 9월 4일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월 5일에 법원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제12대 이사회로 출범하였다. 인하학원의 중흥과 중단 없는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책을 담당하게 된 당시의 새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 조중훈(趙重勳)

- 이 사 : 성좌경(成佐慶), 박태원(朴泰源), 한만운(韓萬運), 류승원(柳承源), 김해두(金海斗), 이원복(李元馥)

감 사 : 장낙중(張樂中), 정인경(鄭仁璟)

이어서 1969년 3월 4일 인하학원 정관의 일부 개정으로 이사 정원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동년 5월 23일 조중건(趙重建), 조병화(趙炳華) 두 이사가 새로 선임되었고, 1973년에는 양찬(梁燦)과 정남규(鄭南圭)가 명예이사로 추대되었다.

그 후 인하학원 재단은 시대변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1968년 9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기존 정관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미



조중훈 이사장·성좌경 학장 취임식(1968. 9)

비한 조항들을 보완, 수정함으로써 인하학  
원 본래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을 좀더 효  
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그  
리하여 숙의를 거듭한 끝에 1968년 11월 14  
일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확정되어  
1969년 3월 4일자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문대관(文大管) 1042·3호〉].  
이때 개정, 승인된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정  
관은 다음과 같다.

《인하학원 정관》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학교법인 인하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보통교육·보통 및 고등  
실업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하공  
과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의 각급 학교를  
유지 경영한다.

병설 초급대학 부설 공업고등전문학교

부설 중앙종합직업학교 부설 중학교

제2장 명칭과 주소

제3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인하학원이라 칭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에 둔다.

제3장 자산과 회계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을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나눈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9조의 적립  
금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장래 기본재산으

로 편입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  
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예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예산을 학교의 예산과 기타 업무예산  
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전항의 학교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  
고 기타의 업무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8조(경비 및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수익사업을 포함)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써 이에 충당한다.

제9조(歲計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세계(歲計)의 매년도 세계(歲計)잉  
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의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  
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  
도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 9인(이사장 1명 포함)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전항의 임기의 반으  
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  
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  
지 못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統理)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  
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  
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  
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3. 전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  
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기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 의사는 이장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 除斥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임  
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집무대행(이사)이  
하 이사회 소집권자라 한다)가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 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이사회 의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  
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수익사업

제24조 (수익사업의 경영)  
이 법인은 제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학교를 유지 경영하기 위하여 교육목적에 필요한 수익사업만을 경영할 수 있다.  
제25조 (정관변경의 의결 정족수)  
이 정관은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제2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9장 교직원

제28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전항 이외의 교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면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휴직의 사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바 필하기 위하여 징

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 지변, 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학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 여행할 때  
제30조 (휴직의 기간)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 전조 제3호, 제5호, 제6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또는 여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1조 (휴직 교직원의 신분)  
① 휴직중인 교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직원은 제29조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복직한다.  
제32조 (휴직 교직원의 처우)  
휴직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교직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직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중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당연위원으로 하고 이외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4조 (除斥사유)  
교지구언 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안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연 징계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5조 (징계의결 정족수)  
교직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36조 (재심위원회의 설치)  
① 교직원의 징계처분의 불복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7조 (재심의결 정족수)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38조 (신분보장 및 징계준거 규칙)  
이 법인의 소속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과 징계에 관하여서는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공고

제39조 (공고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신문에 게재한다. 한국일보

부칙

① (세칙의 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②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이기봉(李起鵬)	임기4년
이사	김법린(金法麟)	"
	안동혁(安東赫)	"
	김유택(金裕澤)	"
	윤성순(尹城淳)	임기2년
	최규남(崔圭南)	"
	손(孫)노덕	"
	표양문(表良文)	"
	이원철(李元喆)	"
감사	박만서(朴滿緒)	"

" 안봉익(安鳳益) 임기1년  
신임 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과 대학 행정 사이의 관할 영역과 책임 소재를 명확한 구분하는 작업에도 착수하여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전후한 격동기에 임시이사진이 빈번히 교체됨으로써 초래된 비능률을 극복하고 대학운영 방식을 체계화, 효율화하기 위한 취지에서였는데, 1968년 11월 14일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다음과 같은 <학교법인과 학교와의 업무한계(業務限界)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 학교법인과 학교와의 업무한계 규정 >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학교법인 정관과 학교법인 및 사립교육기관의 업무한계준칙(문교부령 제 7456호)에 의거하여 각 기관 상호간의 제반 업무에 관한 책임을 명백히 하여 업무의 충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사회 및 이사장의 관장사항)  
학교법인(의결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의 대표는 이사장임)은 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인의 일반 관리
  - ① 이사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사장)
  - ② 정관의 개정 및 이의 시행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사회)
  - ③ 법인의 설립, 이사의 취·해임,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사항(이사회)
- 2. 인사
  - ① 임원의 선출과 그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
  - ② 학교장의 진퇴에 관한 사항(이사회)
  - ③ 교원·사무직원의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사회)과 그 발령(이사장)

- ④ 교원과 사무직원의 보직(이사회), 발령(이사장)에 관한 사항

단 (1)전 ③④항에 있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및 보직에 있어서는 학교장의제청이 있어야 한다.

(2)전 ③④항의 교원과 사무직원이라 함은 각 급 학교의 주사급 및 전임교원을 말한다.

(3)전직 및 승진은 학교장이 이를 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목적학교의 관리

- ① 목적학교의 설립, 폐지와 설립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사회)
- ② 학급, 학과, 학생정원의 증감에 따른 학칙변경의 결의(이사회) 단 그 신청은 학교장의 소관으로 한다.
- ③ 목적 학교의 목적 · 명칭 ·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이사회)

4. 재산관리 및 경리

- ① 법인 및 학교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사회)  
단 학교예산(학생징수금으로써 편성하는 예산)의 편성은 학교장 책임 아래, 법인의 예산은 이사장의 책임 아래 편성한다.
- ② 학생징수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이사회)
- ③ 예산집행 상황의 徵求와 검사 · 감독에 관한 사항(이사회)
- ④ 기본 재산의 취득 · 처분 · 담보제공 · 기채,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이사회)
- ⑤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한 사항(이사회)
- ⑥ 법인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사회)  
단 이사회 소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3조 (학교장의 관장사항)

- 1. 인사
  - ①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보직포함)에 관한 제청과 징계의 상신에 관한 사항
- 2. 재산관리 및 경리

- ① 학교예산 편성 ·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교육용 기본재산 및 일반재산(중요비품)으로서 관리가 위임된 사항
- 3. 학사
  - ① 학생의 입학 · 출결 · 학생회운영 · 학교신문운영, 기타 학생에 관한 규율, 복무에 관한 사항
  - ② 성적(학점)의 결정과 학생의 급락 및 학위의 수여와 졸업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의 자치, 실험실습,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 ④ 학생 제 증명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교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
  - ⑥ 교과과정의 편성과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⑦ 학적의 정리 · 보관에 관한 사항
  - ⑧ 인사위원회, 교수회, 기타 학사관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R.O.T.C.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본 규정에 의하여서 명백하지 않은 업무한계에 관하여서는 법령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196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절. 대학의 새로운 운영

1954년 개교 이래 14년간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꺾끗이 성장한 인하학원은 조중훈 이사장의 취임과 새 재단의 영입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명문 사학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 최고의 공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6대 성좌경 총장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1968년 9월 14일 성좌경(成佐慶) 박사가 박철재 학장의 뒤를 이어 인하공과대학 제 6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성 학장은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한 인하공과대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다.

창설이래로 본 대학을 세워 주시는 데 힘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전통 있는 본 인하공과대학의 학장에 취임하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하공과대학은 인하라는 그 명칭이 나타내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구성하고 있는 기구의 알찬 내용으로 10여년의 역사와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또한 그들이 건설한 중견기술자로서 우리나라 공업계에서 맹활

약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나 국내 유일를 특색 있는 종합적인 공업일군의 양성기관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금번 한진상사의 조중훈 사장께서 거액의 기금을 회사하시고 본 대학의 더욱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드신 차체에 우리나라 과학계의 대선배인 박철재 박사님의 뒤를 이어 불초 본인이 제6대 학장에 지명된 데 대하여 그 책임이 문자 그대로 중차대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본 대학의 창설 이래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시고 헌신노력하신 역대 학장님의 노고에 재차 굳은 경의를 표하면서 전력을 다하여 본 대학의 발전에 헌신 · 노력하고자 합니다.

근년에 우리나라는 매년 10% 내외의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세계에서 그 예가 드문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경이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는 주로 광공업의 2차 산업과 건축 및 전기, 수송 등의 3차 산업이 기여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휴식 없이 계속되어 공업에 의한 우리나라의 부강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업발전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할 참다운 공업일군의 양성, 즉 현재의 공업이 어떤 일꾼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래의 우리나라 공업은 어떤 일꾼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공업교육기관의 임무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지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공업교육이 기술교육을 그 근간으로 할진대 “기술은 창조에서 이룩된다”는 근본적 사고로 보아 창조성의 함양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독창적인 기술의 개척능력의 양성이 공업교육의 지상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하 우리나라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선진기술의 흡수 소화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겠으나 독특한 우리 기술의 개발이야말로 장래 우리나라 공업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공업이 응용과학이며, 응용능력은 튼튼한 기초 여하에 좌우된다고 볼 때 공업교육에서 기초교육은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의 모든 과학은 급속도로 세분·전문화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종합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수록 공과대학의 교육은 전문화된 세부지식의 전수보다도 기초이론의 철저한 이해와 응용능력의 함양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공업이 생산이요, 기술이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근원이 될진대 공업교육에서 실험실습이 그 주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이론은, 실험으로 실증되지 않은 기술은 극단으로 말해서 기술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인가의 형성이며 공업교육이라 해서 이 점이 간과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과학의 도리는 노력에 의해서 만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과학기술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본 대학을 우리나라 제일의, 아니 세계에서든 굴지의 특색 있는 공과대학으로 육성시키고자 함에는 본인이나 여러분이나 아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학외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공업이 교수 여러분의 두뇌와 지식과 경험과 노력에서 이룩된 연구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며, 장차 일꾼이 될 학생 여러분의 일터를 마련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과학기술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여러 시책을 강구하고 또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한편 학원에서는 새로운 재단이 본 대학의 발전과 건설 및 여러분에 대한 정신적 및 물질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스스로 다듬어야겠습니다. 국가와 공업과 재단의 뒷받침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노력 없이는 훌륭한 대학은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대학은 무엇보다도 좋은 학풍, 즉 분위기의 조성이고 그 분위기는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

고 연구하는 교수와 공부하는 학생으로써만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교수 여러분의 연구에 대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공업발전과 향도 인천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참여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장려하겠으며, 학생들의 전공지식 향상을 위한 과외활동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시설 등 제반 편의를 공여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중(輕重)에서는 선후의 분별은 있어야겠고 외형보다 내용과 실질이 우선되고 양보다 질을 중시하겠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교수 여러분께서는 일진월보하는 과학기술의 각 전공분야의 발전방향과 추세를 정확히 파악 판단하고 우리 공업의 당면문제와 장래를 깊이 통찰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에 의한 창조적인 연구에 전념하면서 참다운 기술의 일꾼들을 양성하겠다는 사명감 속에 학생의 지도·육성에 주력하고, 학생 제군은 국가·민족의식의 함양과 인격도야의 원칙하에 일하는 공업역군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에 부응하는 심신의 연마를 위하여 정진하며 금후의 생애를 좌우하는 모든 기틀이 구축되는 대학학창생활을 뜻있게 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사무직원 여러분은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한다는 근본적 원칙에 벗어남이 없고 덧붙여 재단의 끊임없는 후원이 있는 한 인하공과대학의 장래 발전은 틀림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합시다. 대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대학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시다. 교수와 학생을 위주로 하는 대학가족 내에 대화의 광장은 넓게 트여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교직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합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향도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받으며 여러분과 본인의 힘찬 의욕으로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향한 새 출발을 맞이하여 내일의 밝

은 희망과 광명을 안겨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불비하오니 이로써 본인의 취임사에 대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지와 각오를 천명하며 취임한 성좌경 학장은 임기 초부터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학사행정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10월 22일 일차적으로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연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사행정상의 제반 문제를 심의, 정돈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1970년 9월 1일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킨데 이어, 5월 17일에는 기획위원회 내에 업무 분담을 위한 몇 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기획위원회

인하공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입안과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및 시설의 확충계획과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입안·심의하는 학장의 자문기관으로서, 학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학처장, 사무국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대학 2부 교학과장 등 5~10명의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전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 ○ 학생선발연구분과위원회

입학시험제도의 연구, 입학시험과목의 선정 및 배점연구, 출제내용연구 및 과거출제에 대한 평가 등을 그 주업무로 하고 있다.

##### ○ 학생지도연구분과위원회

학생지도를 위한 장기계획, 학생과외활동과 사회참여문제의 연구, 학생회 육성 및 학생생활의 연구, 학생자질향상과 장학제도의 연구 등을 그 주업무로 한다.

##### ○ 시설분과위원회

본 대학 교육시설의 파악과 시설확충 및 활용 방안 등의 연구를 그 주업무로 한다.

##### ○ 교육분과위원회

교과과정의 운영 및 개편, 교육방법 및 학습평가의 개선, 교육자료의 개발과 교육환경의 개선 등의 문제를 연구·심의한다.

##### ○ 건설분과위원회

본 대학 시설물의 건설계획을 입안·심의한다.

#### ② 인사위원회

인하공과대학 내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과장, 학생과장 및 대학 2부 교학과장을 비롯한 7~9인의 학장이 위촉하는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 ③ 연구심의위원회

인하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967년 11월 2일에 설치된 연구심의위원회는 1) 학술연구에 관한 종합계획, 2)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및 연구비의 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리고 연구계획 및 연구과정의 검토와 연구결과의 분석·평가 등을 심의하며, 인하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 ④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본 대학에서 교수할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 11월 2일에 설치된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교과과정의 제정과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여,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 및 교무과장을 비롯한 학장이 위촉하는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10인 이내)으로 구성하였다.

#### ⑤ 연구실적심사위원회

인하공과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에 필요로 하는 실적심사를 위하여 1970년 11월 20일에 설치된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학처장을 비롯하여 학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교직원임용규정 제13조에 정하는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논문의 심사위촉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심사·관장한다.

새로운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신입 학장의 이러한 초기 노력에 발맞춰 신 재단이사 회에서도 대학의 학사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무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68년 9월 14일에 학사행정기구의 개편이 결의,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주요 내용은 종래의 교학과를 교학처로 승격시키고 그 아래에 교무과, 학생과, 대학 2부 교학과를 두는 것과 교무과 내에 학적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

어 있었다. 한편 사무국에는 기획관리과 대신 경리과를 부활시키고 경리과 안에 재산계를 새로 설치하였다. 이어 1971년 5월 3일에는 대학의 운영 및 행정상의 제반 문제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맡은 기획실을 신설하였다.

한편, 취임 초에 무엇보다도 교수진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성좌경 학장은 1969년 3월 1일 한국 공학계의 중진인 김재원(金在元 금속공학과)과 정낙은(鄭樂殷 공업경영학과) 교수 등 10명의 전임교수를 신규로 초빙, 임용한 것을 필두로 인하공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초대 총장을 역임할 때까지 총 63명의 교수를 충원함으로써 본 대학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참고로, 1968년 8월 당시의 교수진과 1968년 9월 이후 1975년도까지의 연도별 교수 초빙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인하공과대학 재직 교수 (1968년 8월 현재)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과 목	비 고
교양학과	교수	김여재(金與齋)	영문학	
	"	이인흥(李仁興)	영어	
	"	임택기(林澤琦)	수학	
	"	신영묵(申永默)	"	
	"	최승하(崔昇可)	체육	
	"	김석영(金奭榮)	교육윤리	
	"	김원표(金源表)	국어국문학	
교양학과	"	김성극(金成極)	수학	
	부교수	엄기준(嚴基俊)	영어	
	"	이영화(李永華)	독어독문학	
금속공학과	"	이진택(李鎭澤)	화학	
	교수	양훈영(梁勳永)	철아금	
	부교수	김수식(金壽植)	비철아금	
	조교수	강인찬(康仁燦)	제조아금	
"	"	최중술(崔鍾述)	물리아금	

기계공학과	교수	황병구(黃炳九)	기계설계
	"	김상철(金相哲)	고체역학
	"	조용철(趙鏞喆)	유체기계
	"	서정운(徐正閔)	증기공학
	"	유한흥(劉漢興)	정밀기계
광산공학과	부교수	양옥룡(梁玉龍)	내연기관
	"	안상욱(安相郁)	공작기계
	교수	박동길(朴東吉)	광물학
	"	손병찬(孫秉瓚)	선광학
전기공학과	"	김규일(金圭佚)	채광학
	조교수	조동성(趙東星)	"
	교수	이종일(李宗日)	발전공학
	"	이주근(李柱根)	회로이론
	"	고경식(高瓊植)	전자공학
	"	김영조(金榮祖)	초고주파공학
	"	천영희(千熙英)	자동제어
	부교수	전춘생(田春生)	고전압공학
조선공학과	"	백용현(白龍鉉)	송배전
	"	김병운(金炳雲)	전자응용
	교수	조규중(趙奎鍾)	저항추진론
	"	인철환(印喆煥)	舶用기관
	부교수	우봉구(禹奉九)	선체운동
화학공학과	조교수	정태준(鄭太準)	舶用기관
	교수	손주환(孫周煥)	유기화학
	"	이현오(李賢五)	고무화학
	"	정기현(鄭基現)	고분자화학
	"	석한균(石漢均)	식품화학
	부교수	이 전(李 鎭)	분석화학
토목공학과	"	남세종(南世宗)	화학공학
	"	이희철(李熙哲)	"
	교수	김진호(金鎭鎬)	구조역학
	부교수	강관원(姜瑗遠)	수리학
건축공학과	"	이동환(李東煥)	철근콘크리트
	부교수	이건영(李建永)	도시계획
	"	정경훈(鄭慶薰)	건축시공
응용물리학과	조교수	원정수(元正洙)	의장계획
	"	이영규(李寧圭)	구조역학
	교수	이은성(李殷晟)	광학
	"	김석연(金錫淵)	핵물리
"	강의덕(姜義德)	물성론	
"	박영길(朴英傑)	고체물리	

△ 연도별 교수 초빙 현황

연도(인원수)	교수 ( )안은 학과명
1968 / 2학기 (3) 1969 (10)	지정만(池禎蔓, 광산), 육광수(陸宏修, 정밀기계), 김병옥(金秉玉, 교양), 김재원(金在元, 금속), 권이묵(權利默, 화공), 조병린(趙炳麟, 화공), 이형규(李衡圭, 화공), 김동일(金東一, 응용물리), 조재문(趙載文, 전자), 정낙은(鄭樂殷, 공업경영), 원진희(元震喜, 공업경영), 임창구(任昌求, 교양), 신현규(申鉉奎, 교양)
1970 (6)	임원연(林遠淵, 기계), 지응업(池應業, 요업), 김영환(金永煥, 교양), 임명방(林明芳, 교양), 최세진(崔世鎭, 교양), 전병문(全炳文, 교양)
1971 (9)	민수홍(閔壽弘, 기계), 김윤제(金潤濟, 정밀기계), 홍성원(洪性完, 조선), 최병하(崔炳河, 전자), 남종우(南宗祐, 화공), 정재기(鄭在基, 화공), 이동주(李東宙, 고분자), 정성택(鄭盛澤, 고분자), 성기열(成耆說, 교양)
1972 (12)	송문익(宋文益, 산업), 김종원(金鍾遠, 전기) 노익삼(盧益三, 고분자), 원영무(元永武, 섬유), 한기성(韓基成, 요업), 강병희(康秉熙, 토목), 최운행(崔雲行, 수학), 주충노(朱忠魯, 화학), 김유항(金裕恒, 화학), 이춘계(李春桂, 가정), 조인석(趙仁錫, 경영), 박희영(朴熙永, 교양)
1973 (14)	정수일(鄭秀一, 산업), 김길조(金吉助, 산업), 송인호(宋仁鎭, 응용물리), 김정업(金鎭業, 고분자), 盧鳴翼(삼유), 정후영(鄭厚榮, 섬유), 최상욱(崔相旭, 요업), 차기원(車基元, 화학), 이익춘(李益春, 화학), 이효은(李孝恩, 가정), 정명오(鄭明五, 사회), 박찬웅(朴贊雄, 외국어), 이성주(李成柱, 경영), 남광우(南廣祐, 국어)
1974 (6)	조옥찬(趙玉燦, 항공), 최동철(崔東哲, 물리), 신용일(慎鏞日, 교육), 정기호(鄭琦鎬, 국문), 임희철(林熙喆, 경영), 이균성(李均成, 경영)
1975 (14)	김영민(金永敏, 산업), 이태원(李泰元, 건축), 이동배(李東培, 건축), 박신웅(朴信雄, 섬유), 정재천(鄭載天, 공업교육), 이강습(李康洽, 공업교육), 조진형(趙眞衡, 수학), 고동성(高東成, 화학), 박성식(朴聖植, 무역), 홍보업(洪寶業, 외국어), 류중호(柳宗鎬, 외국어), 홍성야(洪性也, 가정), 우경자(禹敬子, 가정), 유영주(劉永珠, 가정)

우수한 교육 환경의 확보를 위한 시설 확 문 면에서는 그동안 자금난으로 중단되어 왔 으나 이제 건실한 재단이 영입됨에 따라 다 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성좌경 총장은 취임 후 재단 측과의 협의에 따라 기획위원회 산 하 건설분과위원회에 인하공과대학 종합건 설계획을 작성할 것을 위촉하였다. 이에 따 라 동 분과위원회는 1968년 11월 4일 <학교 건설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심의, 선정된 대학 종합건설 마스터 플랜에 의거하여 일차적으로 1969년 7월 8일 본관건물의 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총 공사비 3억 7천 여 만원이 투입된 이 건물 은 1970년 6월 2일 상량식을 갖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일개발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 한 끝에 1년 6개월만인 1971년 4월 24일에 준 공을 보게 되었다. 대학본관 준공식에서 성 좌경 학장은 “오늘의 본관 준공식이 있기가 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중훈 이사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외형적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으니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감회어린 연설 을 하였고, 이어서 조중훈 이사장은 “본관건 물은 기술인 양성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 며, 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

라는 축사를 하였다.

대학본관의 준공을 계기로 교수연구실과 실험실을 재배치하여 화학공학과, 산업공학 과, 고분자공학과, 금속공학과, 요업공학과, 섬유공학과와 교양과 등의 실험실습실과 교 수연구실이 본관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1969년 7월에는 학생들의 실 험·실습을 위한 주물공장이 착공되어 12월 에 완공을 보았다. 이는 총 528평의 독립건물 로서 4백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이었다.

또한 1969년 8월에는 조선공학과와 선형 시험수조관(船型試驗水槽館)이 새로 착공되 어 1970년 11월에 완공을 보았다. 이 수조관 은 6천 1백만 원이 투입된 2,267평 규모의 국 내최대 수조(水槽) 시설로써 그 길이만 80m 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재정난으로 미루어 오던 화학공과관 증축공사도 4천만 원을 투 입하여 1970년 10월에 착공하여 2,640평으로 확대되었다.

대학의 미관과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 해서도 많은 공사가 진행되었다. 1969년 4월 에는 정문 좌우 담장 800m의 축조공사가 이 루어졌고, 5월 중순경에는 대학 구내도로의



선형 시험수조관 준공시 모습

포장공사가 마무리되고 분수대를 비롯한 조 경공사도 완료되었다. 또한 1971년 4월에는 대운동장 일대에 산재되어 있던 민가를 철거 하고 2천5백 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을 완성함으로써 종합대학의 캠퍼스답게 웅장 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교수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1971년 9월 8일, 2호관 219휴게실에 교수휴게실이 마련 되어 상호 친목과 대화는 물론, 각종 업무연 락 및 회의실 용도로도 쓰이게 되었다. 아울 러 1971년 5월 1일에는 2호관 2·3·4층의 중 앙 홀에 벤치 30여 개(150석)를 설치하여 학 생들의 휴게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중견 공업기술인의 양성을 위해 1963년 3월 18일 인하공과대학에 병설되었 던 초급대학은 그동안 많은 우수기술인을 배 출하여 한국 공업계에 이바지한 바가 컸으 나, 1967년 3월 22일 대학에 공업고등전문학 교(5년제)가 부설됨에 따라서 존립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1966년 11월부터 문 교부에 누차 초급대학의 폐지를 신청했으나 보류되어 왔었는데, 그후 대학 당국은 문교 정책의 변동에 따라 마침내 1969년 12월 24 일 문교부로부터 본 대학 병설초급대학의 1970년 2월 28일자 폐교 승인을 통보받았다. 그동안 병설초급대학을 거쳐간 졸업생은 금 속과, 기계과, 광산과, 전자과, 전력과, 화공 과, 토목과, 건축과 등 8개 학과의 총 1,388명 에 달했다. 그만큼 중견 공업기술인 배출에 큰 몫을 했던 것이다. 다행히 폐지된 병설초 급대학의 학생정원은 인하대학교 정원으로 흡수되어 이후의 학과 증설과 학생 증원에 도움이 되었다.



## 제2장. 종합대학교로의 승격 1972. 3~1981. 2

### 제1절. 대학의 종합화 계획

인하대학교는 1974년 4월 24일로 개교 20주년을 맞게 되어 성년이 되었다. 그사이 1968년 9월 趙重勳이사장이 인하학원을 인수함을 계기로 발전의 전기를 맞아, 단과대학이던 仁荷工科大學은 숙원이던 종합대학 인하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울러 成佐慶학장의 탁월한 대학운영과 교수들의 학술향상과 성실한 교육으로 교육의 현저한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한편 규모면에서도 학과도 21개 학과에 3,300명의 학생정원을 포용함으로써 종합대학으로 확충·개편할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또한 336만 경기도민의 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당시 인구 80만을 포용하는 한국의 4대 도시의 하나인 仁川에 인하공과대학이 유일한 정규모대학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만을 지향해 온 단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고등교육과 문화창달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하공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확충·개편하기를 바라는 현지 주민들의 여론과 요청은 높아갔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1970년 10월 인수 두 돌을 맞이한 인하학원 이사회는 <仁荷大學校 綜合發展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장·

단기별로 나누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1970년 10월 2일 현존 工科大學을 주축으로 理科大學(수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가정학과), 經營大學(경영학과, 무역학과), 海洋大學 등을 병설하는 종합대학 개편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는데, 문교부에서는 師範大學의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시달하였다. 이에 대학당국은 1971년 7월 24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요청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원수급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협조를 받아 전술한 종합대학 개편안을 수정, 이를 재단이 사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1971년 7월 28일 <仁荷大學校 設立認可申請書>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이 신청서에 제시된 종합대학 설립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문화와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발전에 직접·간접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구 336만의 경기도 내에 종합대학을 두는 것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요망되는 바이며, 둘째로 인구 80만의 항구도시이며 산업도시인 인천에는 현재 21개 고등학교에서 연간 4,3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

며, 이 중에서 3,000여 명 이상이 서울 시내 각 대학에 통학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을 이 지역에서 흡수 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고등교육기관의 설치가 요망되고 있다.

셋째로, 서울에 인접하여 있는 인천시에 내용이 충실한 종합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는 해양운송에 따라 완공을 서두르고 있는 제2 부두의 건설을 비롯하여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인공업단지 내의 각 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과 기술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점차 비대화하는 서울의 집중을 막고 산업기관의 지방분산을 기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넷째로 부강한 조국건설은 산업의 융성에서 비롯된다는 국내외 유지들의 애국심의 발로로 하와이 교포이주 50주년을 기념하여 1954년 설립을 보게 된 본 대학은 쌓여진 연륜에 따라 착실하게 발전하여 온 역사와 전통이 확고한 대학으로서 성년을 맞이한 차제, 축적된 역력은 종합대학으로 확충·개편할 힘을 비축하고 있으며, 다섯째로 현재 인하공과대학은 21개 공학과에 3,300여 명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타 종합대학에 비하여 하등 손색이 없는 규모로써 단과대학으로서 너무 비대한 것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여섯째로, 전술한 사실 이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합대학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하여 노력하는 교직원과 학생을 지원하고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을 다하는 학교재단의 의욕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仁荷工科大學이 仁荷大學校로 승격될 것은 필연의 사실로 되기에 이르렀다.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을 목전에 둔 1971년 3월 현재, 인하공과대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인하공과대학 현황(1971년 3월 현재)

(1) 기본재산현황

(가) 설립당시 자산

- ① 교지 : 125,000평
- ② 국고보조 : 1,000,000불
- ③ 하와이 교포성금 : 150,000불
- ④ 국내유지기부금 : 2,700,000원

(나) 국제협약원조자금

- ① UNESCO기술원조 : 500,000불
- ② 서독정부 기술원조 : 500,000불

(다) 한진상사 출연금

- ① 인수당시출연금 : 200,000,000원
- ② 추가(FY 69, 70) 출연금 : 220,421,900원

(2) 교원현황

- ①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86명
- ② 강사 : 53명

(3) 학생(정원)현황

- ① 본대학 : 2,285명
- ② 대학2부 : 739명
- ③ 대학원 : 16명
- 계 : 3,040명

(4) 졸업생현황

- ① 본대학 : 2,841명
- ② 대학2부 : 366명
- ③ 대학원 : 45명
- 계 : 3,252명

(5) 도서관 장서현황

- ① 동양서 : 12,813권
- ② 서양서 : 24,331권
- ③ 학술잡지 : 27,476권
- 계 : 63,620권

- (6) 교수연구비지급현황  
 ① FY69 : 12,627,000원  
 ② FY70 : 19,764,497원  
 계 : 32,391,497원
- (7) 시설도입현황(AID 20만불 포함)  
 ① FY69 : 47,050,000원  
 ② FY70 : 49,860,000원  
 계 : 96,910,000원
- (8) 중요건설현황(1968.9 ~ 1971.3)  
 ① 공사건수 : 수조관신축 등 8개 공사  
 ② 사업비총액 : 644,106,400원

- (9) 설치학과현황  
 ① 본대학 : 16개 공학과  
 ② 대학2부 : 5개 공학과  
 ③ 대학원 : 8개 공학과  
 계 : 29개 공학과

인하학원 재단이사회는 앞의 인하공과대학 종합화 계획에 따라 1970년 10월 〈仁荷工科大学 綜合發展 7個年計劃〉을 수립하고 총 사업규모 1,431,129,000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한편, 〈綜合大學 設立에 따른 施設擴充計劃〉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 인하대학교 종합발전 7개년계획 (1971 ~ 1977)

사업구분	사업비(원)	연도별진척율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교사	3호관	285,120,000	←.....→					
	4호관	83,952,000	←.....→					
	5호관	111,936,000			←.....→			
	대강당	55,968,000				←.....→		
부속시설	중앙도서관	69,960,000	←.....→					
	과학관 및 박물관	47,916,000				←.....→		
	회관	38,478,000			←.....→			
실습공장	제4실습공장	48,792,000	←.....→					
	제5실습공장	55,968,000	←.....→					
	제6실습공장	55,968,000		←.....→				
	제7실습공장	82,952,000			←.....→			
	종합체육관	109,989,000					←.....→	
환경조성	구획정리	89,100,000	←.....→					
	도로포장	13,000,000				←.....→		
	구내녹화	14,850,000					←.....→	
	수·배전시설 급·배수시설	30,000,000 50,000,000				←.....→		←.....→
내부시설	실험·실습시설	160,000,000			←.....→			←.....→
	장서확충	90,000,000	←.....→					

총 사업규모 : 1,431,129,000원  
 내역 ① 설립자 부담금 : 1,050,000,000원  
 ② 독자자 기부금 : 285,129,000원  
 ③ AID 차관금 : 160,000,000원

△ 종합대학 설립에 따른 시설확충계획 (단기발전계획)

구분	확충분	연차별확충계획								소요자금(원)	
		71년	보유%	72년	보유%	73년	보유%	74년	보유%		합계
교원	120명	30	59.8	30	73.2	30	86.6	30	100	120명	
교사	20,789㎡	7,500	78.3	7,500	90.3	6,800	102.1	3,280	107	25,080㎡	531,696,000
실습공장	2,487㎡	3,610	67	2,640	81.8	2,040	93.2	1,350	100.8	9,640㎡	204,368,000
박물관 및 과학관	1,803㎡							1,980	109.5	1,980㎡	47,916,000
도서관	980㎡	1,500	130.7	1,800	243					3,300㎡	69,960,000
장서	55,380권	15,000	66.3	15,000	78.8	15,000	91.3	15,000	103.8	60,000권	90,000,000
실험기재	2,787점	700	80.68	700	87.16	700	93.7	687	100	2,787	64,000,000

사업규모 : 1,007,940,000원  
 내역 ① 설립자 부담금 : 793,940,000원  
 ② 독자자 기부금 : 150,000,000원  
 ③ AID 차관금 : 64,000,000원

이와같은 종합대학 설립의 절실한 필요성으로 승격인가를 받게 되었고, 이로써 仁荷의 과 완비된 여건이 인정되어 仁荷工科大学은 역사는 '仁荷大學校'로 새로운 중흥과 도약 1971년 12월 31일 문교부로부터 종합대학으 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진재단 인수후 신축한 대학본관 (1971. 4. 24)

## 제2절. 종합대학교로의 새로운 출발

### 1. 인하대학교의 발족

전술한 바와 같이 1968년 9월 인하학원을 인수한 趙重勳이사장은 <仁荷大學校綜合發展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해 왔다. 또한 안으로 成佐慶학장은 교육환경의 정비와 교수의 연구정진 및 학생의 학문연마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교세는 확충되어 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가사회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여건이 성숙된 1970년 9월 17일 재단이사회에서는 종합대학 개편안을 확정짓고, 10월 2일 문교부에 인하대학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문교부로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협의·검토할 것을 종용받고 1971년 7월 24일까지 동 위원회와의 협의를 완료한 다음 7월 28일에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31일부로 다음과 같이 仁荷大學校의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인하대학교 설립인가서

- ① 명칭 : 仁荷大學校
- ② 수업연한 : 4년
- ③ 개교년월일 : 1972년 3월 1일
- ④ 설치대학 및 학교별 학생입학정원

(1)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 40명	기계공학과 : 50명
자원공학과 : 35명	전기공학과 : 40명
전자공학과 : 35명	조선공학과 : 40명

화학공학과 : 40명	토목공학과 : 40명
건축공학과 : 40명	응용물리학과 : 30명
정밀기계공학과 : 40명	요업공학과 : 40명
산업공학과 : 40명	섬유공학과 : 30명
고분자공학과 : 30명	통신공학과 : 30명
항공공학과 : 30명	생물화학공학과 : 30명
계 650명	

(2) 이과대학	
수학과 : 30명	가정학과 : 40명
화학과 : 30명	
계 100명	

(3) 경영대학	
경영학과 : 40명	계 40명

(4) 대학2부	
전기공학과 : 30명	기계공학과 : 35명
전자공학과 : 30명	화학공학과 : 30명
금속공학과 : 30명	
계 155명	총정원 945명

⑤ 경과조치 : 인하공과대학은 1972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고, 1972년 3월 1일자로 인하공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대학2부 포함)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각각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고 1972년 3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인하대학교는 기존의 공과대학을 비롯하여 이과대학, 경영대학 및 대학2부 등 4개 단과대학에 27개 학과를, 그리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10개 학과와 박사학위과정 4개 학과를 설치하고 3,902명을 포용하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년 동안의 전통과 위상에 걸맞는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된 인하대학교는 제2의 도약기를 이끌어 나갈 초대 총장으로 成佐慶박사를 선임하고, 1972년 2월 2일 문교부의 총장취임 동의를 받았다. 이어 동년 3월 3일에는 내외 귀빈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총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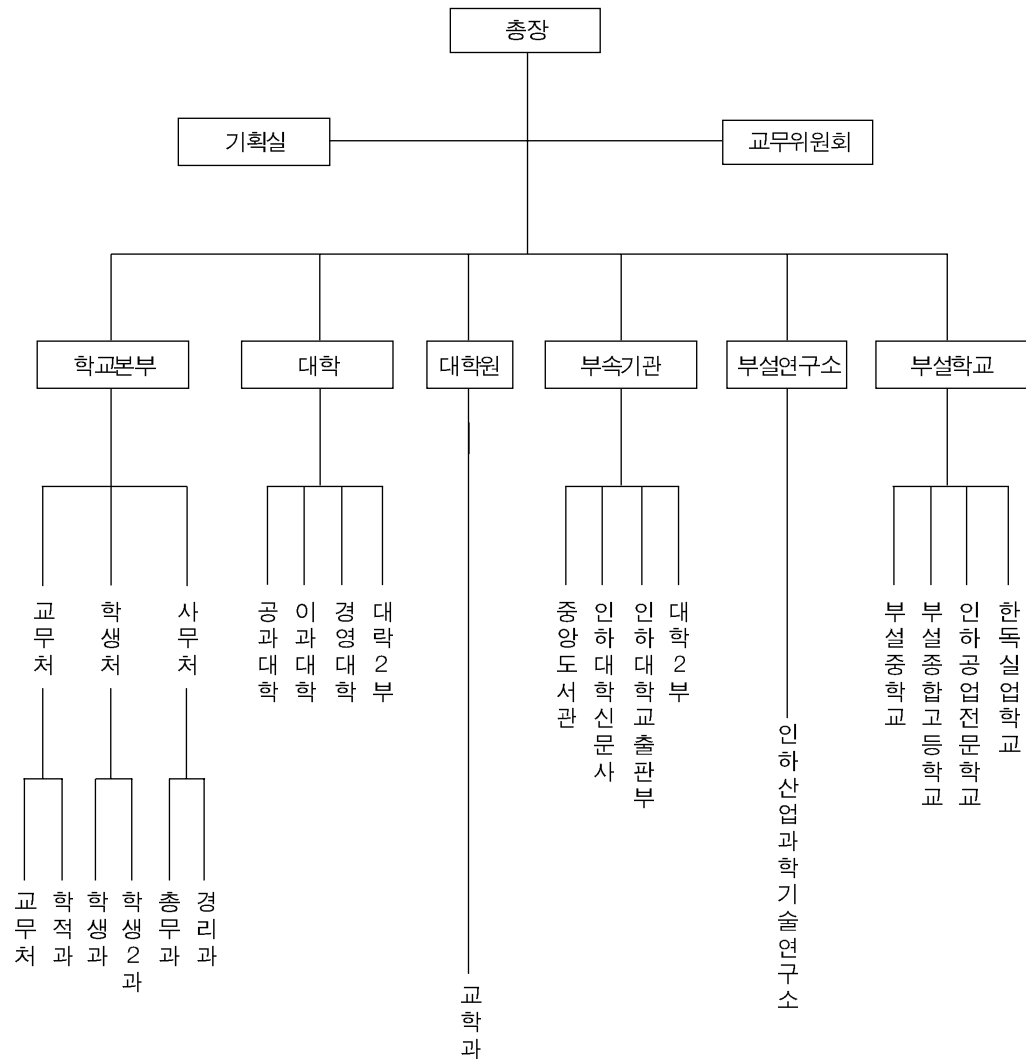
이날의 式典에서 성좌경총장은 “인하대학교의 확고한 기반과 전통의 확립, 그리고 발전에 전력할 것”을 맹세하였으며, “전통의 확립이나 발전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중지를 모아 목표와 방향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결정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조중훈이사장은 총장 취임의 치사를 통해 “유능한 총장으로 성좌경박사를 모시게 된 것을 교직원 및 학생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다같이 오늘의 시련과 내일의 고난을 인내와 굳은 의지로써 극복하고 민족중흥의 사명의식을 더욱 굳건히 하며 빛나는 학원전통의 배양에 크게 기여할, 보다 뜻뜻한 긍지와 자신을 갖도록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내빈으로 참석한 閔寬植 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새 역사의 기수로서 손색이 없는, 평소부터 존경해 오던 유능한 학자인 성좌경박사가 인하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수많은 공업 역군들을 배출하여 조국 근대화에 기여하였던 인하공과대학이 인하대학교라는 종합대학의 새 체제를 갖추고

출범함을 계기로 힘찬 전진을 바라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총장 취임식에 이어 ‘仁荷大學校’의 현판 제막식도 거행되었다.

성좌경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종래 공학계 단과대학의 체제를 복합적인 종합대학의 새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인하대학교의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 기구개편에 있어서는 종합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교무처와 학생처 및 사무처를 두고, 교무처에는 교무과와 학적과를, 학생처에는 학생과와 학생2과를, 그리고 사무처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설치하였으며 학교운영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평가하여 총장을 보좌하게 할 목적으로 기획실을 신설하였다. 이때 개편된 운영기구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 종합대학 개편 기구표



이와 함께 종합대학의 새 체제에 걸맞는 기구의 개편에 수반하여 각 기구의 보직을 담당할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다. 1972년 3월 1일, 새로 출범하는 인하대학교의 개편된 주요 기구에 보임된 보직자는 아래와 같다.

- 대학원장 : 金在元 교수
- 인하대학신문사주간 : 申鉉奎 교수
- 공과대학장 : 高瓊植 교수
- 기숙사사감 : 安相郁 교수
- 이과대학장 : 朱忠魯 교수

- 인하대학교출판부장 : 趙炳麟 교수(겸임)
- 경영대학장 : 成佐慶 총장(겸임)
- 대학원교학과장 : 權利默 교수
- 교무처장 : 池應業 교수
- 대학2부장 : 南世宗 교수
- 학생처장 : 林明芳 교수
- 교무과장 : 李聲圭 참사
- 사무처장 : 張樂中 참여
- 학적과장 : 洪性元 교수
- 기획실장 : 趙炳麟 교수
- 학생과장 : 崔世鎭 교수
- 인하산업과학
- 학생2과장 : 申慶國 참사
- 기술연구소장 : 金在元 교수(겸임)
- 총무과장 : 安重完 참사
- 중앙도서관장 : 曹奎鍾 교수
- 경리과장 : 鄭鎭謨 참사

그리고 다음 해인 1973년, 시범대학 신설이 인가되어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역사전공)가 설치됨으로써 인하대학교는 종합대학

교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어 가게 되었다.

## 2. 재단의 지원과 대학발전

1968년 9월 14일 인하학원 제12대 이사장에 취임한 조중훈이사장은 1973년 9월 28일 취임 5주년을 맞아 본 학원의 이사, 교직원, 학생 그리고 본 학원의 발전에 공이 큰 한진그룹의 간부 등을 초청하여 취임 5주년 기념식을 갖고 축하연을 열었다. 이 기념식전에서 조중훈 이사장은 한진그룹 산하의 한진, 대한항공, 한일개발, 한국항공, 동양화재 등 계열사대표들에게 인하학원의 발전을 위한 물심양면의 협조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梁玉龍교수 등 6명의 인하학원 교직원을 표창하였다. 그리고 취임 5주년을 기념하여 인하대학교에 학생회관 및 구내식당을 건립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조중훈이사장은 인하학원을 인수한 이래 학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해 왔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하학원의 재정지원현황 (1974년 3월 현재)

연도별	내역별	재산조성(원)	재정지원(원)	합계(원)
1968		201,565,000	16,251,000	217,816,000
1969		14,262,000	44,472,000	58,734,000
1970		128,596,000	64,788,000	193,384,000
1971		128,651,000	52,150,000	180,801,000
1972		53,039,000	33,090,000	86,129,000
1973		224,438,000	48,880,000	273,318,000
1974		6,299,000	16,550,000	22,849,000
합 계		756,850,000	276,181,000	1,033,031,000



그리고 인하학원에 재정재원자금을 출연한 한진그룹 산하 각 계열사별 기부금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기부자별 재정지원현황 (1968 ~ 1974년)

한진주식회사	대한항공 주식회사	한일개발 주식회사	한국공항공 주식회사	동양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합 계
403,911,400원	80,050,000원	100,000,000원	93,450,000원	32,200,000원	709,611,400원

또한 조중훈이사장은 인하대학교 개교 17주년 기념 및 본관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본 대학 학생들을 위해 교육용 및 전시용 항공기 엔진 두 대를 기증하였다. 이 엔진은 현재 대학본관 1층 로비 양쪽에 전시되고 있다. 또한 1973년 3월에는 <DC-3>형 항공기 1대를 기증하였는데 교육 및 전시용으로 본관 왼쪽 잔디밭에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조중훈 이사장은 인하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1969년 7월이래 통근 버스를 기증하였으며 1974년 9월에는 이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였다.

한편 인하학원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조중훈이사장의 육영의지를 돕고자 趙이사장의 嚴親인 趙明熙翁은 1971년 12월 2일 개인재산 6천 2백 76만 5백 원을 흔쾌히 본 학원에 기증하였다. 이에 인하학원 이사회는 이를 수증하기로 결의하고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는 1954년 4월 24일의 개교이래 20년 동안 대폭적인 시설의 확충을 보았다. 시설의 확충현황을 10년차 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인하대학교 시설확충 현황

구분	연도별	1954.4	1964.4	1974.4
교지		125,173평	133,510평	※ 109,251.50평
교사		300평	3,247평	17,521.26평
체육장		0	17,822평	21,224평
부속시설		0	1,382평	2,290.31평

※ 1964년도에 비하여 1974년도에 교지가 감소된 것은 換地로 인한 것임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시설확충으로는 하와이동포 기념 실내체육관의 준공을 들 수 있다. 총 건평 722평(1층 476평, 2층 246평)의 철근 콘크리트조인 이 실내체육관은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본 대학의 발전을 지원해온 하와이동포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관으로 1973년 10월 30일 건립되었다. 10월 30일의 실내체육관 준공식에는 하와이교민회 대표들이 초청되었다. 이 자리에서 성좌경 총장은 인하학원 관계자와 교육계 및 체육계의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교포 여러분의 정성어린 땀이 깃들여진 체육관을 갖게 된 것을 충심으로 교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중략) 앞으로 이 훌륭한 체육관을 잘 활용하여 본교생들의 체력증진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조중훈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으로 이룩된 체육관의 준공을 보게 된 데 대하여 이 감격과 감사의 보답을 말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우며, (중략) 이 체육관은 인하의 번영과 전진하는 인하의 터전의 기초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인하체육의 중흥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에 의한 체육관의 건립은 인하의 전통과 창학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3. 개교 20주년의 인하

인하대학교는 1974년 4월 24일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구한말 조국이 식민지화 되어가는 참담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7천여

동포가 인천항을 출발하여 하와이로 이주한 이래, 그곳에서 신천지를 개척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던 하와이 동포들의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2년여의 준비 끝에 동양의 MIT를 지향하고 개교하였던 인하공과대학이 이제는 한국 굴지의 종합대학인 인하대학교로 성장하여 성년을 맞은 것이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대학의 역사로 보아 그리 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하학원은 그동안 급변하는 한국사회에 부응하면서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극복해가며 용현별 13만여 평의 대지에 대학본관을 비롯 공학관, 학생회관 등 웅장하게 서있는 교사와 실험실을 포용하는 인하캠퍼스를 가꾸면서 인하대학교와 부속 공업전문학교, 한독실업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 1만여 인하인이 勤學하는 대학원으로 성장하였다.

개교 20주년을 경축하는 각종 기념행사가 개교기념일에 앞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1주간에 걸쳐 학술·문예·비룡·체육제 등으로 성대하게 거행되어 용현별 대학캠퍼스를 수놓고 대학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 예술제는 ‘싱아웃 공연’, ‘문학의 밤’, ‘합창단 창단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렸고 기계·전기·건축·전자제품 등의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비룡제는 교수 초청파티, 전국대학 그룹사운드 경연대회, 키플 장기자랑 등이 개최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체육제는 13일 오전부터 대운동장에서 성좌경 총장 이하 전교수와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되어 1주일간 각 구기종목과 마라톤, 육상의 전 종목에 걸쳐 펼쳐져 인하인의 약동하는 기개를 마음껏 드높였다. 仁荷大學新聞은 이를

기념하여 <대학문화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성년인하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또한 성년 인하대학교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발전 좌표를 찾기 위해 成佐慶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金在元·趙奎鍾·李益春·南廣祐·林明芳·張樂中·鄭在基·黃炳九·李泰元·朴龍緒·鄭明五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하20년사 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仁荷二十年史》를 동년 말에 발간하였다. 양장 4 6배판 크기에 인하대학교의 건학·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본문 636면과 부록 314면의 학교발전 관련 중요 자료를 망라하였는데 집필을 주로 임명방·정명오 교수가 담당하였다.



개교 20주년의 인하대학교 (1974. 4)

인하공과대학 개교시 李源喆 학장 이하 14명의 전임교수와 기계공학과 등 6개학과 180명의 신입생으로 발족했던 인하공과대학이 20년 동안 급성장하여 1972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이제는 공과대학을 필두로 이과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의 4개 단과대학에 28개 학과의 4천여 재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전임교수들과 단란하면서도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각종 시설과 실험기재를 활용하면서 연구하고 勤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대학교도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보다 밝은 내일을 전망하면서 종합대학으로의 기반을 확고하게 굳힌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3절. 대학 종합화의 구현

### 1. 대학 종합화의 포부

1976년 2월 成佐慶 초대총장은 1968년 9월 인하공과대학의 제6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래 3년 6개월간의 학장과 1972년 3월 인하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초대총장으로 부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되었다. 성좌경총장은 한국 고분자공학계의 권위자로서 국립공업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및 각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여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았고, 1966년에는 원자력연구소장, 원자력청장 등을 역임하여 한국 원자력공학 발전의 선구자로 공훈을 세워왔었다. 본교에 부임한 후로는 본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 인하대학교를 국내 굴지의 종합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단시일 내에 종합대학교로서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성좌경총장은 재임 중 학풍진작에 힘쓰는 한편 교사의 확충과 실험실습기재의 도입, 우수교수의 초빙 등 본 대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퇴임시에는 대학규모가 공과대학을 위시하여 이과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대학2부의 5개 대학 30개 학과와 대학원 석사과정 14개 학과, 박사과정 6개 학과로 커졌고, 여기에 부속학교로 인하공업전문학교, 한독실업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포용하는 대 학원으로 성장하였다.

1976년 3월 15일 성좌경총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훌륭한 대학을 이룩해 보고자 뜻을 같이하고 고락을 함께 했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본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재단 임원 및 지역사회 유지 그리고 동문들에게 감사한다”는 인사와 함께 퇴임에 따르는 감회를 피력하고 “교수들은 이상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와 사회봉사에 성공을 거두어 주기 바라며 학생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국가사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닦으라”고 당부하였다.

이날은또한 개교 이래 22년 동안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힘차게 자라온 인하공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지 4년, 초대총장 성좌경 박사의 후임으로 李在澈박사가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朴泰源박사가 신설된 초대 부총장에 취임하였다.

인하대학교의 제2대 총장에 취임하게 된 이재철 박사는 일본 京都帝國大學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였고, 정부에서 감사위원과 과학기술처 및 교통부의 차관을 역임하는 등 학문·교육행정의 다방면에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해 왔었다. 또한 박태원 부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68년 9월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한진

그림의 조중훈 이사장이 인수하여 새로이 인하학원재단이사회를 구성할 때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인하대학교와는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초대 성과경총장의 이임식을 겸한 이날의 제2대 이재철 총장과 초대 박태원 부총장의 취임식은 오후 2시에 본 대학 노천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조중훈 이사장을 비롯하여 崔慶鏞 교통부장관, 趙成鈺 문교부차관, 조병규 경기도지사, 申能淳 경기도교육감 등 각계 인사와 교수,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식전에서 조중훈 재단이사장은 퇴임하는 성과경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신임 이재철 총장과 박태원 부총장에게는 辭令狀 수여하였다.

한편 이재철 신임총장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인하대학교 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재직기간 중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며 인하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 “대학은 교육·연구·사회봉사의 3대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융화시켜 수행할 때 대학의 사명을 다한다”고 대학의 이념을 환기시키면서 “전문지식과 사명감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하는 대학으로서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진력하고 외형적 시설확충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종합대학으로서의 체제와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여 명실상부한 인하대학교 대학종합화의 포부를 밝혔다.

1978년 9월 14일, 한진그룹 조중훈회장은 인하학원을 인수하여 새로운 인하학원 재단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교육사업의 참여가 곧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결의하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0년 동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간 조중훈 이사장이 재단을 인수하여 각종 교육시설에 투자한 액수는 52억 8천여만 원에 달하였다. 이에 힘입어 인하학원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중학교로부터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는 각급 학교를 포용하는 종합학원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아름다운 교육환경, 각종의 훌륭한 교육시설, 학식과 덕망을 갖춘 권위있는 교수진과 면학에 정열을 쏟는 1만 4천여 재학생을 포용하는 한국굴지의 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취임 10주년을 맞이한 조중훈이사장은 “10년전 인수당시의 인하학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돈도 안된 채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없는 대학처럼 운영되어 혼돈 그대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이 대학을 여하히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은 번민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술회하였다. 당시 교정만 보더라도 “민가가 수십 채씩 자리잡고 있었으며, 건설공사의 일부는 공사비의 미지불로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교직원 사기를 위한 복지문제 등등 해결하여야 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는 하지만 10년 전의 인화와 10년 후의 인하는 많은 변화와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13만여 평의 대지에 자리잡은 인하캠퍼스에는 수십동의 현대식 건물을 비롯하여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종합대학교다운 각종

시설들을 훌륭하게 조성한 교육환경, 실험실습시설의 완비 등은 今昔之感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78년 9월 25일 상오 10시, 조중훈이사장의 취임 10주년 기념식이 인하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많은 내외 귀빈과 이재철총장이하 인하학원 산하 각급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조중훈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교육입국의 투철한 교육관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도 충실한 장기계획을 세워 학교의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南世鍾 교수(화공)을 비롯하여 李永華 교수(외국어), 趙成玉 교수(공전), 閔洪基 교감(공고), 趙相元 교사(부고), 安相男 교사(부중), 崔應默간사(인하학원), 崔昌德 기술원(공전), 丁國燮 직원(공전), 李時雨 직원(도서관) 등이 조중훈이사장으로부터 유공표창을 받았다. 기념식 후에는 교정에서 기념식수가 있었고 또한 회의실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역대 총·학장에 대한 기념품 증정, 인천시장에 대한 명예이사 추대패 수여, 인하대학신문사 주최 도내 남녀고교생 영어학력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수상식 등이 차례로 거행되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야구장에서 도내 교장단 및 교직원 간의 친선 정구대회가, 종합경기장에서는 각 단과대학 대항 축구경기가 거행되었으며 대학본관 로비에

서는 인하대학신문사 주최로 ‘仁荷成長史’라는 보도사진전이 개최되어 인하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 2. 대학 종합화의 구현

### (1)인하건설 5개년계획

1976년 3월 15일 인하대학교 제 2대 총장에 취임한 李在澈박사와 초대 부총장 朴泰源박사는 취임 직후부터 종합대학으로서의 인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재철총장은 그동안의 교육경험과 행정각료로서 쌓은 연륜을 바탕으로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인하대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발전계획의 기본은 1976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신입생의 증가율에 맞추어 인하학원 내의 전 인하인에게 좀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에서의 확장과 아울러 이재철 총장이 취임시에 강조한 바 있는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仁荷建設 長短期計劃〉은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본교를 국내 굴지의 시설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재철 총장이 1977년 4월 19일자〈仁荷大學新聞〉을 통해 밝힌 동 계획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25억 원, 1980년부터 1983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확충과 캠퍼스 정비는 물론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교직원과 학생복지 대책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다. 이 장단기계획에 따라 제1차 건설기간인 1976년부터 1979년까지는 시설확충과 캠퍼스 정비에 중점을 두어 1976년 9월 1830평 규모로 이미 착공된 5호관과 대운동장 건설, 새로운 교문 건립과 담장개축을 1977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이어 중앙도서관의 기초공사와 함께 교내 환경조성 사업으로 녹화사업과 상징탑 건립 등에 착수한다고 하였다.

인하건설 제2차 건설기간인 1980년부터 1983년에는 모두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교직원 처우개선, 그리고 교직원 연금제도 등을 확립하고 학생복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하건설의 기본계획은 1978년에 이르러 〈仁荷建設 5個年計劃〉으로 개편되어 1982년까지 87억 원을 투입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1978년 현재, 인하학원이 창립 이래 4·19와 5·16을 거치면서 격심한 시련을 겪다가 1968년 한진그룹의 조중훈회장이 재단을 인수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고, 이를 계기로 세계 속의 인하대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978년 6월에 이르러 1977년의 〈仁荷建設 長短期計劃〉을 확대 개편하여 총 87억 원에 달하는 〈仁荷建設 5個年計劃〉을 세웠던 것이다. 1977년에 세웠던 인하건설 장단기 계획을 더욱 구체화한 이 계획은 1978년을 기점으로 1982년까지 각종 외형시설 및 내부시설에 87억 1천 1백만 원을 집중 투입하

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5개년계획의 제1차년도인 1978년에는 이미 착공한 제2공학관을 비롯, 군사교육관, 학생휴게소, 仁荷亭, 운동장 증축 등에 16억 5천 1백만 원을 투입하고, 1979년에는 21억 2천만 원으로 도서관 및 분수대, 학생회관을 증축하고, 1980년에는 15억 3천만 원으로 교양학관(8호관)과 대강당을, 1981년과 1982년에는 교수회관, 과학관, 기숙사, 박물관 등을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인하건설 5개년계획〉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건립 : 24억 7천 2백만 원
- 부속시설건축 : 13억 2천만 원
- 각종 복지시설 및 환경미화 : 9억 8천 9백만 원
- 내부시설 · 실습기자재 · 장서확충 : 39억 4천만 원

이와 같은 사업의 기초는 5개년계획 전체예산의 절반을 학생들의 실력배양을 위한 연구·실습활동에 투입하여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全人教育을 받게 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에 최우선의 목표를 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외형적 시설 확장에도 유의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교내외적 요청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재학생 정원의 증가에 부응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계획의 기본방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하대학교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점차 실현되어감에 따라서 인하학원의 모습은 점점 종합학원으로서 손색없는 면모

를 갖추어 나갔다.

한편 대학당국은 이러한 시설면에서의 발전에 발맞추어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내지 30명의 우수교수를 초빙할 것을 구상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1979년 3월 1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재철 총장과 박태원부총장의 인하발전계획에 이재철총장은 “앞으로 4년 후 학생수가 1만 5천 명 선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심각해질

교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20~30명의 교수를 유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의 확보는, “종합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공계분야는 물론 법경대학, 사범대학 등의 교수도 다수 초빙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초빙된 연도별 교수충원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연도별 교수 초빙현황 (1976~1981)

연도(인원수)	교수 ( )안은 학과명
1976 (14)	기계 金熙喆, (항공) 洪用植, (산업) 申鉉杓, (고분자) 成佐慶, (오염) 黃鍾明, (수학) 具滋興, (화학) 李範性, (경제) 張世珍, (경영) 金基明, (국어) 尹明求, (교육) 金興圭, (법학) 裴慶淑, (사학) 尹炳奭, (가정) 朴贊富
1977 (5)	기계 吳壽喆, (전기) 李錫漢, (자원) 金斗榮, (생물) 梁瑞榮, (영어) 朴垣
1978 (11)	(전기) 李德出, (전자) 洪勝弘, (섬유) 馬錫一, (경영) 全鎔秀, 朴吾銖, (경제) 金大煥, (영어) 閔丙喜, (행정) 安禧洙, (정의) 金萬圭, (가정) 玄溫剛, (생물) 張正淳
1979 (21)	기계 柳亨善, (항공) 徐鎮範, 柳時隆, (전자) 金興壽, 金鐵成, (금속) 崔載昊, (수학) 朴祥圭, (화학) 李海晃, (물리) 李昶熙, (전산) 王昌鍾, 柳元熙, (경영) 安台鎬, 辛容輝, (무역) 朴永一, (국어) 李喆洙, (영어) 宋寅甲, (법학) 鞠淳玉, 尹寶玉, (사학) 韓榮國, (생물) 李範俊
1980 (25)	기계 金鍾輔, (항공) 朴璿培, (전기) 許旭烈, (회공) 張潤鎬, (금속) 朴元玖, (토목) 金建興, (수학) 吳尙煥, (화학) 金性洙, (물리) 李在一, (경영) 裴武彥, (회계) 安勇根, (무역) 徐東天, (교육) 白龍德, (체육) 河永俊, (미술) 朴瑛星, (법학) 韓亨健, 李永熙, (행정) 張志浩, (영문) 宋顯燮, 鄭成學, 申載實, 張敬烈, (사학) 鄭珣鎬, (법학) 金基善
1981 (41)	(국문) 趙炳華, (기계) 朴喆熙, 金在道, (산업) 李昌鎬, (고분자) 尹鎮山, (환경) 尹泰一, (무재) 吳在熙, 金喆泳, (금속) 柳然澈, (건축) 李文燮, (수학) 金永俊, 梁容準, (화학) 崔載鎬, 丁圭鉉, (물리) 孔弘珍, (생물) 柳在赫, (전산) 李均夏, (해양) 吳在京, 崔仲基, (경영) 李慶煥, 千命燮, 鄭在勳, (경제) 李秀範, 金鍾吉, 吳斗煥, (상교) 申冕浩, (영어) 南慶和, (사회) 金光彥, (교육) 金昌杰, (미술) 柳寬浩, 白顯玉, (정의) 李永宰, (국문) 金載弘, (불문) 康和秀, (중문) 宋在祿, (일문) 芹川哲世, (사학) 李忠熹, 徐永大, (철학) 李昌大, (국문) 金文昌, (수학) 李桂成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통한 실력 향상을 위해 각종 실습기자재의 도입도 적극 추진되었다. 1977년 3월 15일 이재철총장과 박태원 부총장은 인하대학신문과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능력의 향

상을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의 보강을 위해 IDA의 교육차관으로 이미 1백만 불 상당의 실험기자재를 받주했다”고 밝히고 “실험기자재의 확충과 함께 실험관을 1동 더 신축하겠다”고 하였다.



(2) 대학의 확장

제2대 총장으로 이재철박사와 초대 부총장 박태원박사가 취임한 이후 인하대학교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종합

대학으로서의 다양한 학문의 연구활동을 위한 학과의 증설과 시설의 확충이었다.

1976년 현재 인하대학교의 학과현황은 공과대학을 비롯한 이과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대학2부에 모두 32개 학과에 총 재학생수는 4,610명이었다. 이를 각 단과대학 별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 대학별 학과 및 재학생 현황 (1976년도)

단과대학	학과	재학생수	단과대학	학과	재학생수
공과대학	17개 학과	2,790명	사범대학	5개 학과	560명
이과대학	4개 학과	320명	대학2부	4개 학과	650명
경영대학	2개 학과	290명	5개 단과대학	32개 학과	4,610명

1954년 인하공과대학 개교 시 6개학과 180명으로 출발한 것에 비하면 197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지 4년만에 인하대학교의 학과현황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종합대학으로 개편된 지 4년만에 32개 학과 4,610명의 재학생이 수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합대학으로서 한국 굴지의 대학, 나아가 "세계 속의 仁荷"라는 웅대한 포부를 가진 전 인하인의 마음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재철 총

장과 박태원 부총장은 재단의 지원과 협조에 이와 같은 웅대한 인하인의 희망을 실현하고 학문의 종합적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학과 증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1977년 경영대학은 법학과와 행정학과의 설치 인가에 따라 명칭이 법경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학과 증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과 증설 현황

연도	구분	학과	비고
1977	신설	법경대 법학과 (30)	행정학과 (30) 4개학과 : 140명
		2부대 전기공학과 (40)	
	증원	공과대 자원공학과 (5)	응용물리학과 (10) 신입생정원 증원 : 215명 신입생모집정원 : 1,510명
		요업공학과 (10)	
		고분자공학과 (10)	
		이과대 수학과 (10)	
사범대 사회교육과 (10)	화학과의 (10)		

1978	신설	공과대 전자계산학과 (40)	상업교육과 (40)	5개 학과 : 200명
		법경대 회계학과 (40)		
		사범대 체육교육과 (40)		
		2부대 경영학과 (40)		
1978	증원	공과대 기계공학과 (60)	전기공학과 (10)	신입생정원 증원 : 410명 신입생모집정원 : 1,920명
		항공공학과 (10)	건축공학과 (10)	
		2부대 기계공학과 (50)	전기공학과 (10)	
		전자공학과 (50)	토목공학과 (10)	
1979	신설	이과대 해양학과 (40)	물리학과 (40)	10개 학과 : 470명
		법경대 경제학과 (40)		
		사범대 역사교육학과 (40)	체육교육학과 (40)	
		미술교육학과 (40)		
		2부대 건축공학과 (60)	조선공학과 (60)	
		산업공학과 (60)	무역학과 (50)	
	증원	공과대 기계공학과	(360)	신입생정원 증원 : 830명 신입생모집 정원 : 2,750명
		항공공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1980	신설	법경대 외교학과 (40)	중어중문학과 (40)	8개 학과 : 320명
		사범대 불어불문학과 (40)		
		일어일문학과 (40)		
		2부대 영어영문학과 (40)		
		회계학과 (40)		
		전자계산학과 (40)		
	증원	공과대 산업공학과 (10)	행정학과 (10)	신입생정원 증원 : 60명 신입생모집 정원 : 3,130명
		법경대 경영학과 (30)		
		법학과 (10)		

이 표에서와 같이 1977년 이후 1980년까지 4년 동안 인하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정원에 약 240%의 증가를 보였고 신설학과도 27개 학과가 되어 1976년에 비해 약 2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발전은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인하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연구 활동과 교수활동에 커다란 도약이 되었던 것이다.

1980년까지의 이와 같은 발전상은 1981년에 이르러 2개 단과대학의 증설로 이어졌다.

1981년 인하대학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문교부의 승인을 거쳐 법경대학을 法政大學과 經商大學으로 분리하여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사범대학에 의존했던 인문과학 분야의 학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범대학을 師範大學과 文科學大學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단과대학의 증설에 따라 인하대학교의 단과대학은 2부대학이 전일제 수업조치에 의해 야간개설강좌로 개편되면서 단과대학에서 제

외됨으로 인해 공과대학, 이과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법정대학, 문과대학, 가정대학의 7개가 되었다.

1981년의 단과대학 증설은 비록 의과대학, 약학대학, 미술대학 등이 유보되어 애초 학교당국이 의도했던 계획에는 못 미친 것이었지만 그동안 공과대학에서 출발한 인하대학교가 각 분야의 학문활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종합대학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하겠다. 다만 이러한 학생의 증가와 단과대학의 증설은 인하학원이 그동안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시설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부족과 교수부족 현상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게 되었다.

인하대학교는 1977년 이후 학과 증설에 따라 신입생의 모집정원이 240%나 증가하였고, 재학생 수도 1976년 4,610명에서 1만 명이 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하학원의 거대화는 학원 내 시설의 확충을 절실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증가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비단 인하학원의 양적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강의실에서 늘어가는 재학생을 수용하고 밀도있고 수준높은 수업을 진행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1972년 본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강의실 부족난을 해결하고 우수교수 초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2대 총장에 취임한 이

재철박사와 부총장 박태원박사는 조중훈 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술한 〈仁荷建設 長短期計劃〉과 이를 구체화한 〈仁荷大建設 5個年計劃〉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 시설 확충 계획

의 실전은 제 5호관(인문사회관)의 착공에서 시작되었다. 1976년 9월 22일 상오 9시, 교직원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5호관 착공식이 신축부지 현장에서 거행되었다. 5호관의 신축계획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 공사비 3억여 원을 들인다는 것이었으나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를 좀더 확대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총 면적 2,353평 규모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공사가 시작된 지 만 14개월이 지난 1977년 11월 23일, 인하의 캠퍼스에 아담하게 들어선 5호관의 준공식이 있었다. 조중훈이사장, 이재철총장, 박태원부총장, 金泰鎬인천시장, 성좌경전총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준공식전에서 조중훈이사장은 “인하인은 인하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는 물론 인하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임을 명심,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고 이재철총장은 “이번 준공에 만족치 않고 계속 대 인하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다.



제2·3대 이재철 총장

인하의 새 건물로 등장한 5호관은 종합 강의실이 3개, 일반강의실 21개, 교수연구실 37개, 학생복지시설 12개, 기타 보일러실 및 수전실이 설치되었고 건물의 옥상 중앙에는 시계탑이 설치된 아담하고 현대적인 종합 학술센터의 기능을 가진 건물이다.

또한 5호관의 준공과 함께 대운동장과 야구장 공사도 종료되었다. 야구장은 외야 전면을 모두 잔디로 덮었고 스탠드시설과 배수시설도 완비되어 전국 대학야구장 중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구장으로 인하의 또 하나의 명물로 등장하였다. 대운동장도 축구장 2면과 함께 스탠드 360m 그리고 본부석이 갖추어져 인하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대운동장 시설은 2차로 나누어 시공했는데 1차에 6백만 원, 2차에 2천 7백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한 것이다. 새로운 정문공사도 준공을 보아 전문대학과 함께 사용하던 壽南路의 구 정문 사용을 지양하고 전 인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웅장하고 미려한 正門을 만들었다.

5호관의 준공으로 우선 부족한 강의실 문제와 교수연구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도 건물증축은 계속되었다. 5호관 완공 후 증축된 첫 건물은 5호관에 연결시켜 공사를 진행한 8호관(교양학관)이었다. 8호관은 1979년 신입생 증원과 질적 향상을 위해 교양학부 전용강의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7호관과 5호관에 흩어져 있던 대단위 강의실을 한 곳에 집중시켜 1학년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사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당초에 8호관의 설계는 연 건평 3,674평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4,062평의 강의실 전용건물로 설계를 고쳐 시공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9월 14일 준공된 8호관은 총 공사비 8억 3천여 만 원을 들여 착공 1년 만에 준공을 보았다. 22개의 강의실을 비롯하여 여학실습실 7개, 교수연구실 20개, 사무실 3개 등이 설치되었고 이밖에도 식당, 매점, 여학생 휴게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졌다.

이 8호관과 함께 제2공학관(6호관)과 학군단 건물도 같은 날 준공되었다. 제 2공학관은 9월 14일 준공식 이전에도 이미 1979학년도 2학기를 맞아 일부 사용해 왔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지상 5층 건물로 연건평 4,013평에 총 공사비 12억 3천여 만 원을 들여 각종 실험실습 시설까지 완비하였다. 이 건물에는 14개의 대단위 강의실과 20개의 소단위 강의실을 비롯하여 교수연구실 38개, 실험실습실 9개, 제도실 4개, 사무실 4개, 휴게실 2개소와 기타 부속시설을 갖춰 공과대학의 강의실 부족현상을 크게 완화시켰다. 또한 학군단 건물은 총건평 476평 규모로 단장실을 비롯, 행정실, 교관실, 시청각실, 피복 및 병기창고, 변전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학군단 건물에는 1억 2천여 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이상과 같은 건물의 신축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강의실 부족문제는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웅비하고자 하는 인하의 의지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캠퍼스에 나타났다. 9호관과 도서관의 신축이 바로 그것이었다. 9호관과 도서관은 1980년 4월 15일 동시에 착공되었다.

9호관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지붕의

총건평 5,245 평 규모로 된 건물이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그리고 출입문 상단부에 6층부터 10층까지 타워가 마련된 이 건물 지하실에는 총 40개의 씨클룸을 만들어 각 건물에 산재했던 씨클룸을 한곳에 수용하여 100여 개가 넘는 씨클들이 정착하여 활발한 학생활동을 펼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하였다. 이 건물에는 대단위 강의실 22개와 각종 실험실습실을 설치하여 학생증원에 따른 강의실 부족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9호관은 공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인 1981년 6월 30일 도서관과 함께 준공되었다.

9호관과 함께 시공되어 같은 날 준공식을 가진 圖書館은 인하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건물로서의 도서관 신축사업으로 전 인하인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착공되었다. 처음 수립된 도서관 신축계획은 현 실내체육관 부근에 총건평 6천평 규모의 건물로 1, 2차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차 공사는 3천평 규모로 지상 5층을 완공하고 2차 공사는 지상 12층 3천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 신축계획은 정부가 후원하던 航空研究所 건설계획이 정부측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중지되었으므로 학교측에서 이 부지에 설계변경을 하여 도서관으로 신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신축공사는 항공연구소로 착공하여 지하 기초공사까지 완료하였던 것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기존설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당초의 계획을 확대, 총규모 7,000평의

중앙도서관을 신축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지붕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도서관은 총 공사비 13억 1천 6백여 만 원을 들여 총열람석 2,362석, 서고, 인문계 과제도서실, 자연계 과제도서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도서이동용 승강기 시설과 도서관 이용자의 휴게시설을 갖추었다. 도서관의 신축으로 그동안 본관건물에 부속되어 있던 도서관은 독립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날로 증가되는 지식정보와 국내외의 학문연구업적을 수집, 전달하는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건물의 신축과 함께 실험실습기재의 도입도 적극 추진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실습기재의 도입은 1977년 3월 이재철 총장과 박태원 부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학신문과의 기념회견에서 1백만 달러 상당의 실험실습기구의 발주를 발표함으로써 가시화된 바 있다. 이후 시작된 이공계의 실험실습기재 도입은 꾸준히 증대되었다.

먼저, 전술한 1백만 달러 상당의 실습기구의 도입은 1978년 8월말까지 도입, 목표액 1백만 불의 76%에 해당하는 82개 품목 2백81점, 75만 5천 1백99 달러의 실습기기가 도착되었다.

이 IDA 교육차관 사업에 국내 사학으로는 처음 참여하여 실행한 이 사업의 1978년 8월말까지의 주요 기기의 도입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과	품목	금액(달러)
항공공학과	Subsonic Wind Tunnel Complete Assembly 외 2점	188,980
화학과	Balance 외 39점	8,021
토목공학과	Specimen Cutting Machine 외 1점	3,319
응용물리학과	DC-Power Supply 외 2점	2,967
가정교육과	Microscope 외 2점	1,200
금속공학과	Autoclave	780
요업공학과	Autoclave	480
화학공학과	Flowmeter Kit 외 2점	369

실험실습기재의 도입은 그후에도 계속 추진되어 1978년말까지 예정했던 목표 1백만 달러를 넘어 총 1백 2만 3백 88 달러에 달하는 실습기재가 도입되었다.

IDA 교육차관에 의한 실험실습기재의 도입성과가 두드러지자 인하학원은 교육차관에 의한 실습기재 도입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 제5차 IBRD 교육차관사업이 확정되자 인하대학교는 공업계와 대학원의 실습기재 도입을 위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제5차 IBRD 교육차관의 전국 배정액 4천 6백만 달러 중 153만 달러를 문교부로부터 배정받아 164종 181점 153만 달러 전액을 조달청 입찰에 의해 구입하였다. 그후 제5차 IBRD 교육차관사업에 추가로 90만 달러를 더 요청하여 이를 배정받고, 추가배정분 전액을 대학원 실습기재 도입에 투입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IDA 교육차관과 제5차 IBRD 교육차관사업에 참가하여 구입한 실험실습기재의 도입현황은 1981년 9월 현재 총 547종 720점 3백 45만 3백 88 달러의 실습기재가 도입되었거나 도입 중에 있었다.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하학원은 제2차

DECF 교육차관사업에도 참가하여 1982년과 1983년 1백 16만 9천 달러 상당의 실습기재를 도입하였다. 이 제2차 OECF 교육차관으로는 이학계의 기초과학분야 연구에 필요한 실습기재를 구입하였다.

### (3) 국제교류의 증진

197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인하대학교는 안으로는 착실한 성장을 통해 국내 굴지의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학문의 발달과 교류에 기여하고 우수한 외국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1975년 10월 7일 인하대학교는 미국의 남加州대학교(USC)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남加州대학교의 자매결연은 조중훈이사장의 적극적인 교섭 결과로 1975년 6월 자매결연이 결정된 것이다. 그 후 10월 7일 본 대학의 성좌경총장과 池應業 사무처장이 미국 로스앤젤리스에 소재한 남加州대학을 방문, Hubbard총장, Kaprielian부총장과 함께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교 간 자매결연이 확정되었다. 이날 합의된 인

하대학교와 남가주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조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하대학교와 남가주대학교 양교대표의 1차회담의 결과로 잠정적으로 합의된 양교의 교류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인하대학교의 공과계 및 경영계 교수가 남가주대학교의 교수와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3개월 내지 5개월의 기간 동안 남가주대학교를 방문하는 것 :

1976년 1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약 3명의 인하대학교 교수가 동계 혹은 하계 휴가 동안 남가주대학교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들은 인하대학교에서 이미 착수한 연구를 계속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2. 남가주대학교 교수가 인하대학교를 방문하는 것 :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교수의 파견 가능성 및 형편에 따라서 남가주대학교는 간혹 교수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인하대학교를 방문케 하여 교수와 연구를 돕게 할 계획이다.

3. 대학원학생의 남가주대학교 수학 :  
1976년부터 시작하여 인하대학교의 공학계 및 경영계의 우수한 대학원생이 상급학위로 인도되는 학문을 추구하기 위하여 매년 남가주대학교에 파견될 것이다.

4. 정보, 연구계획보고 및 전문적인 출판물의 교환 :  
남가주대학교는 동교 공과대학교수들의 연구보고 및 전문적인 출판에 관하여 제한 없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하대학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인하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관심거리가 될 만한 자료의 복사물을 제공한다.

5. 연구협력 :  
제 4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교환은 양교 교수들에

게 양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활동을 친숙하게 할 것이며 공통관심의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협력과 개인적인 교류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6. 남가주대학교의 교과과정에 관한 정보 :  
남가주대학교의 어느 특정한 강좌가 인하대학교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될 경우에 남가주대학교는 그 강좌에 사용되는 교과서와 참고서류를 인하대학교에게 알려준다.

7. 이 상호협력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한층 더한 교류의 분야가 첨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학교 총장 성좌경  
남가주대학교총장 존 R. 허바이드

양교간에 조인된 자매결연 관계는 양교의 꾸준한 성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실천에 옮겨졌다. 이 협정이 체결된 후 1983년 8월 말 현재 13회에 걸쳐 37명의 본교 교수들이 남가주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시찰하였고, 3명의 본교 출신 학생들이 남가주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었다. 남가주대학교에서는 4명의 교수가 본교를 방문하여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본교의 지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1975년 자매결연 이후 남가주대학교에 파견되었던 본교 교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남가주대(U.S.C) 연도별 파견교수

기별	기간	학과	성명	비고
1	77.1.16 ~ 77.2.25	고분자공학과	노익삼	
	77.1.15 ~ 77.3.1	건축공학과	원정수	
	77.1.17 ~ 77.2.25	항공공학과	조옥찬	
2	77.7.20 ~ 77.2.25	화학과	이익춘	
	77.7.12 ~ 77.8.26	생물학과	양서영	
	77.7.15 ~ 77.8.30	산업공학과	김영민	
3	78.1.19 ~ 78.2.21	응용물리학과	최동철	
	78.1.19 ~ 78.2.28	건축공학과	최영규	
	78.1.18 ~ 78.3.8	요업공학과	황진명	
4	78.7.14 ~ 78.8.10	고분자공학과	정기현	
	78.7.14 ~ 78.8.11	수학과	구자흥	
	78.7.1 ~ 78.9.5	화학과	김유항	
5	79.1.15 ~ 79.2.28	회계학과	이성주	
	"	화학공학과	남세종	
	"	산업공학과	정수일	
6	79.7.20 ~ 79.8.20	화학과	이진택	
	"	산업공학과	신현표	
	"	섬유공학과	원영무	
7	80.1.10 ~ 80.2.28	금속공학과	김재원	
	"	수학과	전병문	
8	81.1.10 ~ 81.2.28	기계공학과	민수홍	
	"	전자공학과	고경식	
	"	응용물리학과	강의덕	
	"	경제학과	조인석	
9	81.7.20 ~ 81.2.28	화학공학과	권이목	
	"	무역학과	박성식	
	"	물리학과	이민희	
10	82.1.25 ~ 82.3.10	조선공학과	조규중	
	"	전자공학과	최병하	
	"	수학과	김성극	
11	82.7.30 ~ 82.8.24	전기공학과	전춘생	
	"	화학공학과	이희철	
	"	화학과	차기원	
12	83.1.17 ~ 83.2.17	화학공학과	조병린	
	"	기계공학과	조용철	
13	83.7.15 ~ 83.8.16	섬유공학과	노정익	
	"	토목공학과	강관원	



남가주대학과의 자매결연 이후 인하대학교는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일본, 대만, 프랑스, 벨기에 등의 외국 명문대학들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만의 大同工學院, 벨기에의 겐트대학교와 자매결연이 성사되었다.

이재철총장은 1977년 6월 24일자 《仁荷大學新聞》을 통해 국제적 교류를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외국 명문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본교의 국제적 학문교류와 문화교류를 위한 노력의 결과 중화민국의 大同工學院측이 이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벨기에의 겐트대학교측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자매결연이 확정되었다”고 소개하였다.

먼저 1977년 8월 27일 대동공학원과 본교 간의 자매결연 협정이 조인되었다. 林挺成 대동공학원장이 본교를 방문하여 이사장실에서 이재철총장과 함께 서명조인한 자매결연은 양교의 발전을 위해 교수·학생의 상호교류, 연구, 교육, 문화 등 각종 자료교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날 양교 간 조인된 협정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와 중화민국 대만에 있는 대동공학원의 대표자는 양교가 보다 친밀한 우의로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교의 교육 학술연구 및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서명함.

1. 인하대학교와 대동공학원은 교육 및 학술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전임교수를 상대교에 파견한다. 시기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하며

기간은 3개월 내지 5개월간으로 한다.

파견인원은 매회 3명 이내로 한다.

2. 인하대학교와 대동공학원은 전문적 학술연구에 필요한 분야 전공교수를 서로 초치하여 공동연구케 할 수 있다. 초치에 관한 시기, 기간, 인원 및 유관조건은 그때마다 협의결정한다. 초치하여 연구하는 기간에 필요한 제경비는 초치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3. 인하대학교와 대동공학원은 교육 및 학술연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정기, 부정기 간행물 보고서 등은 교환하여 서로 연구·이용토록 한다.

4. 인하대학교 및 대동공학원은 매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을 교환 방문한다. 방문의 시기 인원은 그때마다 협의결정한다. 방문에 필요한 제경비 중 체재비는 체류지교에서 부담하며 기타 경비는 방문교에서 부담한다.

5. 인하대학교 및 대동공학원은 학생의 친선운동정기를 교환하여 지속적으로 우의를 돈독히 한다.

위의 각항 외에도 상호 필요한 사항은 협의결정하여 시행한다.

1977년 8월 27일

인하대학교 총장 이재철  
대동공학원 원장 임정생

이날 조인식에는 본교에서 이재철총장을 비롯하여 박태원부총장, 趙仁錫 법경대학장, 鄭基現 교무처장, 成耆說 대학신문사 주간이 참석하였고, 대동공학원 측에서는 林挺生 원장, 林昭揚 교무장, Richard Tsou비서장 등이 참석하였다. 조인식이 끝난 뒤 林挺生 원장은 이재철 총장의 안내로 학교시

설과 각 실험실습실을 살펴본 뒤 “이처럼 훌륭한 학교와 결연을 맺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조인식에 앞서 조중훈 이사장은 林挺生 원장을 초청, KAL빌딩 프레지던트룸에서 오찬을 베풀었으며, 이재철총장은 워커히에서 자매결연을 경축하는 만찬을 개최하였다. 1977년 8월에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83년 10월말 현재까지 본교에서는 8회에 걸쳐 100여 명의 학생들이 대동공학원 및 대만의 교육제도와 청년활동 등을 시찰 견학하기 위해 대동공학원을 방문하였으며 양교 교직원들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양교에서 29명의 교직원들이 상호 교환 방문하여 교육제도의 상호비교와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벨기에 겐트대학교와는 1978년 1월 18일 본교의 이재철총장이 겐트대학교 J.Hoste총장의 초청을 받아 동교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에 합의하고 협정서에 조인함으로써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겐트대학과의 자매결연 협정조인은 이보다 앞서 1977년 5월 본교의 洪用植 교수(항공)가 겐트대학교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동년 6월 28일 벨기에 명예영사 칼로스 벤호브가 내한, 본교의 이재철 총장과 자매결연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한 후 체결된 것이었다.

겐트대학과의 자매결연 이후 1978년 2월 10일 J. Hoste 겐트대학교 총장은 본교 이재철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선 본교 대학원생 중 1명을 겐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겐트대학교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이리하여 본교에서는 본교 출신 학생 1명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또한 본교에서는 겐트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초청하여 교육시설과 실험실습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는 세계적인 학문의 발달과 문화의 교류를 위해 인하대학교가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인하대학교의 창학정신과 교육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아울러 남가주대학교(미국), 대동공학원(대만), 겐트대학교(벨기에)와의 자매결연은 상호간의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의 내실화, 학문과 문화의 교류, 그리고 국제친선 도모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본교가 “세계 속의 仁荷”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였다.